「규장총목」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Gyujang-chongmok*, or the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Books in Gyujanggak

리 상 용 (Sang-Yong Lee)*

목 차

1. 서 론
2. 「규장총목」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2.1 표제표시
2.2 책수표시
2.3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 표시
2.4 저자명표시
2.5 저작역할어표시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3. 평가 및 의의
4. 결 론

초 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서호수(徐浩修)가 정조의 왕명으로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규장총목(奎章總目)」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목록기술은 표제, 책수,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규장총목」은 상당히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목록기술사상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Gyujang-chongmok*, or the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Books in Gyujanggak, which was published by Seo Ho-su's in 1781 by the King's command in the Joseon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as examined regarding its title, volume number, written age, name of author, functional word of authorship, and noteworthy examples. However, its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Gyujang-chongmok* has established entries for annotated works based on the relatively unified method of its bibliographical description.

키워드: 서호수, 풍석, 규장총목, 규장각, 목록기술방식
Seo Ho-su, Pungseok, Gyujang-chongmok, Gyujanggak, Bibliographical Description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5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5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77-388,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377〕

www.kci.go.kr

1. 서 론

『규장총목(奎章總目)』은 1781년(정조5) 정조가 보만재 서명응(保晩齋徐命膺 1716-1787)에게 편찬하라고 명을 내렸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학산 서호수(鶴山徐浩修 1736-1799)가 그 해에 완성한 규장각 장서목록이다. 당시 편찬한 『규장총목』은 『열고관서목(閱古觀書目)』과 『서서서목(西序書目)』의 합본이었으나 이 합본은 현전하지 않는다. 현전하는 『규장총목』은 장서각소장의 『열고관서목』과 서울대학교 소장의 『규장총목』과 『서서서목』인데,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소장 『규장총목』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대학교 소장 『규장총목』은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된 중국서적의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권수제(卷首題)와 표제(表題)가 『규장총목』으로 기재된 것으로 서적마다 해제를 기술한 해제목록인데 비해, 장서각소장 『열고관서목』은 『규장총목』의 부분본이 아니고 독립된 별본(別本)으로 편찬된 것으로, 열고관서목(64장)과 개유와북방서목(5장), 문헌각서목(10장), 연경당서목(4장)의 합철본이고 서명, 권부수, 저자명만 표시한 간략목록이며, 현전하는 『서서서목(西序書目)』 역시 『규장총목』의 종합서명을 지닌 것은 없고, 독립된 별본(別本)으로만 남아 있는데, 해제목록이 아닌 표제, 권수, 저자 표시정도만 기재된 간략목록(리재철 1976)이므로 본 논고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규장총목(奎章總目)』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리재철(1976), 송일기(1983), 김희영(2009), 정호훈(2012) 등의 것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규장총목』의 분류체계와 서명응, 서호수, 서유구 부자의 목록편찬업적과 18세기 조선의 외래지식집성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아직 『규장총목』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규장총목』은 개유와에 소장된 중국본 서적을 수록한 사부분류법 분류순 해제목록이다. 여기에서는 수록된 개개 저작에 대해 목록기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규장총목』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고구해 보고자 한다.

2. 『규장총목』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규장총목』의 각 저록(著錄)의 기입(記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록기입법인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大學衍義補三十本

明太學士丘濬編共一百六十卷 神宗御製序曰 宋儒眞德秀爲大學衍義 止於格致誠正修齊 而治平猶闕 太學士丘濬乃繼續引伸 廣取未備 揭治國平天下之要[1]

위의 예를 분석하면,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는 표제를, '삼십본(三十本)'은 책수를, '명

1) 徐浩修. 『奎章總目』. 卷三. 皆有窩 丙庫 子 儒家類.

www.kci.go.kr

(明)'은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를, '태학사구준(太學士丘濬)'은 저자명을, '편(編)'은 저작역할어를 '神宗御製序曰 … 揭治國平天下之要'는 해제를 각각 가리킨다. 즉, 「규장총목」의 각 저록의 기술 요소는 대체로 표제, 책수,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적 기술 사항 중에서 해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표제표시

「규장총목」에서는 표제표시에 있어서 어찬서(御撰書) 또는 어정서(御定書)에 대해 '어정(御定)'이나 '흠정(欽定)'이란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제표시에 있어서 그 외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예:

勦捕臨淸逆匪紀略九本 淸乾隆時勅撰
日知薈說三本 淸乾隆御撰
朱子全書三十本 淸康熙御撰 太學士熊賜履 李光地等編次
性理大全二十二本 明永樂時翰林學士胡廣 等奉勅撰
詩經大全十二本 永樂勅修本

2.2 책수표시

여기에서 말하는 책수(册數)는 서지적 권수가 아니라 물리적 권수인 책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本)'이란 접미어를 사용하였으며,

예:

四書五經大全九十本
韓詩外傳三本
說文解字十二本

필요할 경우 해제에서 서지적 권수를 별도로 기입한 경우도 있다.

예:

大學衍義補三十本 明太學士丘濬編 共一百六十卷

간혹 두 부 이상의 서적이 있는 경우 '부(部)'란 접미어를 붙이고, 소자로 각 부의 책수를 부기한 경우도 있었다. 두 부의 책수가 같을 때는 '각(各)'이란 접두어를 붙여 기술하였다.

예:

詩傳彙纂二部 一部十二本 一部二十四本
南史二部 一部二十五本 一部十五本
續藏書二部 各八本

책수를 모르는 경우는 그 자리를 빈 칸으로 두었다.

예:

明本釋 本

www.kci.go.kr

2.3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 표시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는, 원래는 저자의 생몰시기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 단위로 표시하고 있으며,

예:

東坡書傳八本 宋蘇軾撰

四書直解十五本 明太學士張居正著

吳越春秋三本 後漢趙曄撰

간혹 역조(歷朝) 대신 연호(年號)를 표시한 경우도 있고,

예:

書傳大全十本 永樂敕修本

四書大全十八本 永樂敕修本

아예 그 시대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예:

古今詩話十本 未詳纂人名氏

讀史漫錄六本 前人著

續近思錄四本 前人輯

南華經四本 卽莊子

唐詩所 前人編

이 경우는 대개 저자가 불분명하여 시대표시를 하지 못한 것이다.

2.4 저자명표시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책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대개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 또는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예:

官職名+姓名의 경우

史記三十本 漢太史令司馬遷著

武英殿聚珍版程式一本 淸董武英殿事金簡撰

農政全書二十本 明禮部尙書徐光啓著

董子三本 漢江都相董仲舒著

姓+名의 경우

左氏春秋傳十二本 魯左丘明著

東坡書傳八本 宋蘇軾撰

四書人物備考八本 明薛應旂撰 陳仁錫增定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직명+출신지+성명(官職名+出身地+姓名)', '관직명+성+호+명(官職名+姓+號+名)'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官職名+出身地+姓名의 경우:

弘簡錄八十本 明刑部員外郞仁和邵經邦撰

續宋宰輔編年錄七本 明通政司右參議金臺呂邦燿編

官職名+姓+號+名의 경우:

呂東萊集八本 宋著作郞呂東萊祖謙著

www.kci.go.kr

2) '출신지+성명(出身地+姓名)' 또는 '출신지+포의+성명(出身地+布衣+姓名)'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포의(布衣)란 백의(白衣) 또는 백포(白布)란 말과 더불어 벼슬이 없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

武編十二本 明武進唐順之撰

太玄經二本 漢成都揚雄著

頌天臚筆 明東吳布衣金日升輯

3) 어찬서(御撰書)와 명찬서(命撰書)의 경우를 보면, 어찬서(御撰書)는 대개 '어찬(御撰)', '어찬(御纂)', '어제(御製)', '어정(御定)', '친선(親選)' 등으로 표시하였다.

예:

日知薈說三本 清乾隆御撰

聖學心法四本 明成祖御纂

歷代君鑑十本 明景泰四年御製

駢字類編一百三十本 清康熙御定

古文淵鑑二十四本 清康熙二十四年親選

명찬서(命撰書)는 대개 '연호+시 또는 중+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時 또는 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시+칙 또는 명+관직명+신하명+등+저작역할어(年號+時+勅 또는 命+官職名+臣下名+等+著作役割語)', '묘호 또는 연호+칙+관서명+저작역할어(廟號 또는 年號+勅+官署名+著作役割語)' 등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며, 연호를 빼고 '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다.

예:

年號+時 또는 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性理大全二十二本 明永樂時翰林學士胡廣等奉勅撰

歷代名臣奏議五十本 明永樂中黃淮楊士奇等奉勅編

年號+時+勅 또는 命+官職名+臣下名+等+著作役割語

皇輿表二十四本 清康熙時命翰林學士喇沙里等撰

性理精義五本 清康熙時勅太學士李光地纂

廟號 또는 年號+勅+官署名+著作役割語

農桑輯要七本 元世祖勅司農司撰進

圖書集成五千二十二本 清康熙時勅內閣纂輯

佩文詩韻七本 清康熙時勅內閣撰

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太上感應篇八本 清翰林編修許纘曾等奉勅撰

그러나 간혹 상기 예에서 본 어제서나 어정서의 기술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

禮記大全十八本 永樂勅修本

勦捕臨淸逆匪紀略九本 清乾隆時勅撰

www.kci.go.kr

4) 저자의 성 다음에 이름을 쓰지 않고 덕망 높은 큰 스승을 가리키는 존칭인 '자(子)'를 붙여서 '성+자(姓+子)'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으며, '호+성+자(號+姓+子)'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성+자(姓+子)의 경우

周子全書一本 宋周子著 朱子註

二程全書十四本 宋朱子編次 明徐必達校正

호+성+자(號+姓+子)의 경우

張子全書三本 宋橫渠張子著 朱子註

邵子全書十四本 宋康節邵子著

朱子大全五十本 宋晦菴朱子著

5) 외국서적을 한문으로 번역한 서적의 경우 저자 앞에 '서양(西洋)' 또는 '태서(泰西)'란 말을 관기한 경우도 있다.

예:

'西洋'을 관기한 경우

儀象志十四本 淸康熙時 西洋南懷仁撰

數理精蘊四十五本 淸康熙時 西洋戴進賢翰林編修 梅穀成等撰

曆象考成後編十本 淸雍正時 西洋劉松齡撰

記法一本 明泰西利瑪竇著

6) 불가서적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승려를 뜻하는 '비구(比丘)' 또는 '승(僧)'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

楞嚴正解十一本 淸天台比丘靈耀述

地理直指八本 淸四明僧如玉著

7)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西洋新法曆書四十一本 明禮部尙書徐光啓因西洋人利瑪竇湯若望等新法 潤色之

焦氏易林四本 漢天水焦延壽傳易於孟喜 此其所著書也

刑部重囚招册五本 淸乾隆時鞫因讞獄之辭 … 不知何人所編

增補字彙十三本 淸張自烈因梅膺祚字彙而增補

8) 저자가 애매한 경우는 좀 더 확실시되는 저자명을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 세간 일부에서 전해지고 있는 저자명을 부기하였으며,

예:

淸類天文分野之書十本 明洪武間 欽天監編進 或云劉基所撰

9) 저자미상인 경우 미상찬인성명(未詳撰人姓名), 미상찬인(未詳撰人), 전인편(前人編), 전인저(前人著), 무명씨(亡名氏)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예:

朱子遺書十四本 未詳撰人姓名

古今詩話十本 未詳纂人名氏

www.kci.go.kr

治曆緣起八本 未詳撰人
皇明兩朝疏抄十二本 未詳選人
唐詩所 前人編
續近思錄四本 前人輯
讀史漫錄六本 前人著
古文奇賞八十二本 前人選
金丹正理大全十七本 明亡名氏編

2.5 저작역할어표시

저작역할어는 '저(著)'와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집(輯)', '중수(重修)', '평(評)', '교(校)', '평선(評選)', '초(抄)', '초(鈔)', '편진(編進)', '술(述)', '유집(類輯)', '선(選)', '편차(編次)', '찬평(纂評)', '소저(所著)', '비평(批評)', '증정(增定)'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예:
諸儒粹言五本 明安成鄒善著
性理諸家解二十四本 明大理少卿韓邦奇輯
陋巷志五本 明江東陳鎬編 海鹽呂兆祥重修
班馬異同五本 宋倪思編 劉辰翁評
皇明寶訓十五本 明禮部尙書呂本等校
戰國策去毒四本 淸 當湖 陸隴其 評選
全史文鈔一百本 明戴羲抄
唐宋八大家文鈔三十本 明茅坤鈔
淸類天文分野之書十本 明洪武間欽天監編進 或云劉基所撰
楞嚴正解十一本 淸天台比丘靈耀述
文章正宗二十本續十本 宋眞德秀類輯
古文鴻藻六本 明黃士京選
象山集要四本 明崇陽聶良杞編次
國朝詩別裁集十八本 淸沈德潛纂評
元白長慶集十五本 唐同中書門下平章事元稹 刑部尙書白居易所著
詩經鐘評四本 明竟陵鍾惺批評
四書人物備考八本 明薛應旂撰 陳仁錫增定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를 들어봄으로써 「규장총목」 목록기술방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6.1 공저자의 목록기술

1) 먼저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고, 대표저자명을 한두 명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으며,

예:
歷代詩家二十四本 淸渤海戴明說范陽范士楫上谷魏允升同撰
隋書二十四本 唐魏徵等撰
元史二部 明洪武二年翰林學士宋濂待制王禕等撰

2)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하는 기술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다.

예:
近思錄八本 宋朱子與呂祖謙輯

www.kci.go.kr

3) 별도의 표시 없이 공저자의 이름을 나열한 경우도 있다.

예:

元白長慶集十五本 唐同中書門下平章事元稹 刑部尙書白居易所著

諧聲品字箋二十本 淸錢塘虞咸熙 草創男德升纘著

4) 수록 서적의 내용별로 편저자표시를 한 경우가 있다.

예:

宋名臣言行錄十六本 前集後集宋朱子輯 續集別集外集宋李幼武輯

白孔六帖四十九本 六帖本三十卷唐白居易撰 續六帖本三十卷宋孔傳撰 其合兩書爲一而析成百卷 則不知爲誰 蓋自宋世已然矣

2.6.2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고 있다.

예:

三遷志六本 明山東按察僉事蒼溪史鶚編 海鹽呂祖祥等重修

世說新語八本 宋臨川王劉義慶撰 梁劉峻孝標註

王右丞集十二本 唐右丞太原王維著 淸仁和趙殿成注

2.6.3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을 한꺼번에 해제한 경우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있는 것으로 그의 해제를 한꺼번에 한 경우, 저작의 서명과 책수를 각각 표시한 다음 저자표시를 하고 있다.

예:

八線表二本 對數闡微二本 對數表二本 八線對數表二本 淸康熙時 命戴進賢等撰

2.6.4 서적의 원본이 불분명한 경우

서적의 원본이 불분명한 경우 원본부전(原本不傳)이란 말을 쓰고, 대본이 된 서적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예:

明本釋 本 宋劉荀撰 原本不傳 淸紀勻[실은 昀]等從永樂大全錄出

3. 평가 및 의의

「규장총목(奎章總目)」(1781)은 정조의 왕명으로 편찬된 규장각장서목록이다. 규장각(奎章閣)은 정조가 조선 세조 때의 문신인 양성지(梁誠之 1415-1482)가 입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즉위와 동시에 설치한 왕실도서관으로,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서이수(徐理修) 등 서얼 출신 학자들을 검서관(檢書官)으로 임용하여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정도로 정조의 규장각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였다. 이 같은 정조의 관심은

www.kci.go.kr

당시 왕명으로 편찬된 「규장총목」에도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규장총목」의 해제내용이나 목록기입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제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규장총목」(1781)이 편찬되기 전에 이미 김휴의 「해동문헌총록」(1638)이 편찬되어 널리 읽혀졌다. 「규장총목」의 편찬자인 서호수가 목록 편찬에 앞서 이 「해동문헌총록」을 읽고 참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정조 때의 대학자인 청장관 이덕무(李德懋)가 「앙엽기(盎葉記)」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서'란 제목으로 우리 역사서적 65종에 대한 목록과 그의 해제를 수록하였는데, 거기에서 「해동문헌총록」을 참조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해동문헌총록」은 이미 정조 때의 호서가들 사이에서 널리 통독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리상용 2010, 249-250).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당시 호서가이자 목록학자 가문 출신인 서명응, 서호수 부자가 「해동문헌총록」을 이미 열독(閱讀)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규장총목」의 목록기입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명찬서의 목록기술방식에 있어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닌 점을 제외하고, 「해동문헌총록」의 목록기술방식을 참조한 흔적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해동문헌총록」과 비교해서 한국서지목록학사상의 의의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표시를 보면, 「해동문헌총록」에서는 그 기입방식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규장총목」에서는 일정하게 정리된 방식으로 기술하였으며, 저자명표시에서도,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저자의 성+실명(姓+實名)'의 형식을 주로 사용했지만, 「규장총목」에서는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 형식을 주로 사용했다. 책수표시에서도,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서지적인 단위인 '권(卷)'이란 용어를 사용한 반면 「규장총목」에서는 물리적 단위로서 책수표시 격인 '본(本)'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불가서적의 기입방식을 보면, 「해동문헌총록」에서는 스님을 뜻하는 '석(釋)'이란 용어를 사용한 반면 「규장총목」에서는 '비구(比丘)' 또는 '승(僧)'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저자미상서적의 경우도 「해동문헌총록」에서는 '부지하인소찬(不知何人所撰)', '부지소찬시대명씨(不知所撰時代名氏)' 등의 형식으로 표현했으나, 「규장총목」에서는 '전인편(前人編)', '미상찬인성명(未詳撰人姓名)', '미상찬인(未詳撰人)' 등의 형식으로 기술했다(리상용 2012, 471-511).

「규장총목」 목록기술방식은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표시, 저자명표시, 저작역할어표시 등 여러 면을 감안해 볼 때 이전에 편찬된 「해동문헌총록」보다 한 단계 높은 목록기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해동문헌총록」은 김휴(金烋)가 개인적으로 22년이란 긴 세월 동안 독자적으로 편찬한 것인데 비해, 「규장총목」은 왕명으로 편찬된 것이며, 비록 편찬자는 서호수로 표기되었지만, 편찬과정에서 규장각신들이 참여하고 서호수는 그 편찬책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규장총목」의 목록기술방식은 그 다음에 편찬된 서유구의 「누판고」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만큼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www.kci.go.kr

4. 결 론

본 논문은 정조의 왕명으로 학산 서호수(鶴山徐浩修 1736-1799)가 편찬한 「규장총목(奎章總目)」(1781)의 각 저록(著錄)에 기술된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장총목」의 각 저록의 기입(記入)은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으며, 각 저록의 기술 요소는 표제, 책수,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제표시는 어찬서(御撰書) 또는 어정서(御定書)에 대해 '어정(御定)'이나 '흠정(欽定)'이란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책수표시는 서지적 권수가 아닌 물리적 권수인 책수(册數)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제를 기술한 다음에 '본(本)'이란 접미어를 사용하여 권수표시를 했다. 권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빈칸으로 남겨둔 경우도 있었다.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표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였으며, 간혹 역조(歷朝) 대신 연호(年號)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저자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책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대개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 또는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관직명+출신지+성명(官職名+出身地+姓名)', '관직명+성+호+명(官職名+姓+號+名)'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어찬서(御撰書)는 '어찬(御撰)', '어찬(御纂)', '어제(御製)', '어정(御定)', '친선(親選)' 등이라고 표시하였고, 명찬서(命撰書)는 대개 '연호+시 또는 중 +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時 또는 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시+칙 또는 명+관직명+신하명+등+저작역할어(年號+時+勅 또는 命+官職名+臣下名+等+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저자의 '출신지+성명(出身地+姓名)'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으며, 저자의 성에 이름을 쓰지 않고 덕망 높은 스승을 가리키는 존칭인 '자(子)'를 붙여서 '성+자(姓+子)' 또는 '호+성+자(號+姓+子)'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외국서적을 한문으로 번역한 서적의 경우 저자 앞에 '서양(西洋)' 또는 '태서(泰西)'란 말을 관기한 경우도 있다. 불가서적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승려를 뜻하는 '비구(比丘)' 또는 '승(僧)'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었고, 저자가 애매한 경우 좀 더 확실시되는 저자명을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 세간 일부에서 전해지고 있는 저자명을 부기하였으며, 저자미상인 경우 미상찬인성명(未詳撰人姓名), 미상찬인(未詳撰人), 전인편(前人編), 전인저(前人著)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저작역할어는 '저(著)'와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집(輯)', '중수(重修)', '평(評)', '교(校)', '평선(評選)', '초(抄)', '초(鈔)', '편진(編進)', '술(述)', '유집(類輯)', '선(選)', '편차(編次)', '찬평(纂評)',

www.kci.go.kr

'소저(所著)', '비평(批評)', '증정(增定)'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이밖에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의 경우, 첫째, 공저자의 목록기술을 살펴보면, 먼저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 대표저자명을 한두 명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연결시키는 기술방식을 취한 경우, 별도의 표시 없이 공저자의 이름을 나열한 경우 등이 있었다. 둘째,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저자를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저자를 뒤에 기술하였다. 셋째,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을 한꺼번에 해제한 경우에는, 저작의 서명과 책수를 각각 표시한 다음 저자표시를 하였다.

이 「규장총목(奎章總目)」의 목록기술방식은 저작시대 및 생존연대표시, 저자명표시, 저작역할어표시 등 여러 면을 감안해 볼 때 이전에 편찬된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보다 더욱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동문헌총록」은 김휴(金烋)의 개인 편찬물이고, 「규장총목」은 왕명으로 편찬되었으며, 비록 편찬자는 서호수로 표기되었지만, 편찬과정에서 규장각신들이 참여하고 서호수는 그 편찬책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호수가 편찬한 「규장총목」은 상당히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전에 편찬된 「해동문헌총록」보다 훨씬 정제된 목록기술방식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한국목록기술사상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희영. 2009.『서명응 삼대의 공구서 편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 리재철. 1976.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硏究.『성곡논총』, 7: 580-598.
[3] 리상용. 2004.『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4] 리상용. 2010. 청장관 이덕무의 목록론에 대한 고찰.『서지학연구』, 46: 249-250.
[5] 리상용. 2012. 「해동문헌총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서지학연구』, 51: 341-357.
[6] 리상용. 2012. 「누판고」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서지학연구』, 53: 205-220.
[7] 徐浩修.『奎章總目』 사본. 4권3책.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8] 송일기. 1983.『奎章總目考: 특히 徐命膺·徐浩修 父子의 活動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9] 정호훈. 2012.『奎章總目』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外來知識 集成.『韓國文化』, 57: 91-12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www.kci.go.kr

[10] 한국도서관협회. 2003.『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im, Hui-Yeong. 2009. *A Study on the Compiling of the Reference Books by the Three Generations of Seo Myoung-Eung*. M.A thesis. Pusan University.

[2] Lee, Jai-Chul. 1976. "A Study of the history of Bibliographies in Korea." *Sunggok NonChong*, 7: 580-598.

[3] Lee, Sang-Yong. 2004. *A Study of Bibliographic Works of Hong, Suk-chu*. Seoul: Asia Cultural Publishing Company.

[4] Lee, Sang-Yong. 2010. "A Study on the Theory of Systematic Bibliography of Yi Deok-mu, a Great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46: 249-250.

[5] Lee, Sang-Yong. 2012.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Haedong-munheon-chongnok*, or the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Korean Book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1: 341-357.

[6] Lee, Sang-Yong. 2012. "A Study on the *Nupan-go*, or an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Wood-block Printing Plates engraved in the Joseon Dynasty of Korea, edited by Seo Yu-Gu: Focused on Analyzing it's Bibliographical Descriptive Forms and Principle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3: 205-220.

[7] Seo, Ho-Su. *Gyujang-chongmok*. Manuscripts 4 volumes in 3 books. A Copies of Gyujanggak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 Song, Il-Gie. 1983. *A Study of Kyu Jang Chong Mok*.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9] Jeong, Ho-hun. 2012. "Acceptance and Its Attitude in Joseon Society toward Foreign Culture in the Late 18th Century: Centering on *Kyujang chongmok*.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guk Munhwa*, 57: 91-125.

[10]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 Cataloging rules*. 4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www.kci.go.kr